

첩 “軍 30만명 감축… 패권주의 추구 않을 것”

(시진핑)

中, 전승절 최대규모 열병식 ‘글로벌 파워’ 과시

한·중, 중·러 관계 ‘신밀월’… 북·중은 냉각

중국이 3일 수도 베이징에서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과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퍼레이드(열병식)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첨단 무기를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중국의 ‘글로벌 파워’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열병식은 오전 10시(현지시간) 베이징 텐안문(天安門)과 텐안먼 광장에서 막을 올렸다. 시 주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 등 정상급 50여명과 각국 외교

사절,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 등이 텐안먼 성루에 올랐다. 장쩌민·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 리펑·주룽지·윈자바오 전 총리 등 전직 지도부와 리커창 총리, 장더창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현직 정치권 상무위원 전원도 참석했다.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과 박 대통령 순으로 자리가 배치돼 중러간 ‘신밀월’ 관계와 긴밀해 진 한중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반면, 최룡해 비서는 끝자리에 배치돼 냉각된 북중 관계의 현수조를 짐작케 했다.

리커창 총리가 전승절 기념식과 열병식의 공식 개막을 선언한 뒤 70발의 예포 발사와 함께 국가개양식이 거행됐다. 호위 부대는 텐안먼 광장 인민영웅기념비에서 개양대까지 ‘121보’를 걸며 국기를 개양

했다. 시 주석은 기념사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30만명을 감축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평화적인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기념사에서 일제의 침략으로 중국인이 겪은 피해와 희생을 부각시키면서도 일본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다.

질은색 산복 차림의 시 주석은 엄숙한 표정으로 자국산 최고급 승용차인 홍치(紅旗) ‘무개차’에 올라 부대원들을 사열했다. 시 주석이 “동지들 안녕하세요, 수고합니다”라고 인사하자 열병대원들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며 충성을 다짐했다. /연합뉴스

열병식은 군 병력 1만2000여명과 500여대의 무기 장비, 200여대의 군용기가 총동원돼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됐다. ‘항모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동평-21D’(DF-21D)와 ‘동평-26’(DF-26),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평(DF)-31A’, 주력 전투기인 쟈-10과 쟈-10A, 쟈-11, 쟈-15, 방공미사일 시스템 홍치6,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홍젠-10’ 등이 대거 공개됐다. 그러나 중국은 차세대 전략미사일인 ‘동평-31B’와 ‘동평-41’, 중국판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쟈-20과 쟈-31 등 최신 전략 무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같은 ‘군사굴기’ 행보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對中)포위망 구축 시도에 반격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과 한중정상 회담 등을 계기로 한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역시 전남 한우”

농식품부 평가, 지리산한우 대상·녹색한우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전남의 지리산순한우가 대상인 대통령상에, 녹색한우가 장관상인 최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 축산물브랜드 평가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인증한 전국 42개 한우, 돼지 등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학계, 농협, 관련회 협회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심사, 3차 최종 심의를 맡았다. 평가 기준은 품질균일성(열동동류·사료 및 사양관리 통일), 고품질 차별화 정도, 물량 공급의 안정성과 가공·유통단계의 위생 안정성, 브랜드의 관

리 능력 등이다. 지리산순한우는 전남 동부권 8개 시·군 7개 축협이 참여한 광역브랜드로,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국 평균(65%)보다 훨씬 높은 91.3%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523농가에 4만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해 6524마리(366억원)를 출하했다. 녹색한우는 전남 서부권 10개 시·군 7개 축협이 참여했다. 1160농가에서 7만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해 6731마리(352억원)가 시장에 나왔다. /유원석기자chadol@kwangju.co.kr

“한중일 회담 일정 조율”

日 관방장관

일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10월 말~11월 초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에 대해 일정을 조율해 응할 것임을 3일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3국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알고 있다”며 “중국·한국 양국과 한중 의사소통을 거듭해 구체적인 시기, 장소, 그런 것을 상세하게 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3국 정상회담과 더불어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양자 정상회담도 목표할 것인지에 대해 “(일본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텐안먼 성루의 정상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텐안문에서 열린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성루에 서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오늘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방문

철거 위기 임시정부청사 시진핑이 원형 보존 도와줘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는 1926~1932년 치열한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1926년 지금의 3층 석조건물에 입주했다. 보존처는 지난해 상하이시와 협의

해 노후 전신물을 전면 개선하고 주변도 정리한 뒤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청사를 재개관하기로 했다. 전시설계안은 우리 측이 마련했고 중국은 약 7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했다. 지난 2007년에는 철거될 위기도 있었으나 당시 상하이시 당서기를 맡았던 시진핑 주석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박준영 전남지사가 상하이시를 찾았을 때 시 주석에게 ‘보존’을 요청, 간신히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박 전 지사는 지난 2005년 7월 시 주석의 전남 방문을 시작으로 2012년 시 주석이 국가 부주석을 맡을 때까지 4차례에 걸쳐 만남을 이어왔다. 당시 재개관으로 인해 임시정부 청사가 철거될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박 전 지

사는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범동을 이어받아야 하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임시정부 청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간곡하게 보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2시간 후 관련 부서에 사정을 알아본 시 주석은 “임시정부청사는 한국인의 염원이 담겨있는 성지와 같은 곳이니 존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20여 년 간 임시정부청사를 찾은 한국인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원석기자chadol@kwangju.co.kr

MB정부 이후 미래부 출연기관장 호남출신 7%

새정치 장병완 의원 밝혀

R&D 예산도 광주·전남 쏠려

이명박 정부 이후 호남 출신 미래창조과학부 출연 연구기관 기관장 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 이후 국가 R&D 사업을 결정하는 미래부 소관 출연 연구기관 기관장 총 71명 중 호남은 26명(37%)이지만 호남은 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호남 출신은 호남, 충청(13명),

강원(4명), 제주(2명)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영남에 이어 수도권이 20명(2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08~2014년 정부의 R&D 투자도 광주는 2% 수준으로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전남은 1%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인사의 핵심은 탕평과 지역 균등인데 MB 정부 이후 영남 편중과 호남 소외가 심각하다”며 “R&D 예산도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균형 예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남북 이산상봉 실무접촉 수석대표 명단 교환

南 이덕행 적십자 실행위원

北 박용일 조선적십자 위원

남북은 오는 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의 양측 단장인 수석대표 명단을 교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어제(2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적십자 실무접촉 북측 수석대표는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라고 통보받았다”며 “우리 측은 이미 지난달 31일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수석대표라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실행위원과 박 중앙위원은 작년 2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

자 실무접촉 때도 수석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의 남북 대표단은 수석대표를 포함해 각각 3명이다. 판문점 남북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에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상봉 시기는 다음 달 초·중순, 장소는 금강산 면화소, 상봉 규모는 200여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 ▲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 이산가족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연제동 광명·새한 2차 특별분양

지금이 기회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빌 3개와 육상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상급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1998㎡의 선착순(중·후 지정)분양중입니다. 양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빛고을로, 북광주 IC, 임방울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라이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몰이 중상급 아파트도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 중시 입주 대응 70% 가능, 선착순 중·후 지정
- 높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 남단·양산지구 중심생활권 우수한 명문학교

상무지구 10분

임대사업자 환영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최고의 마진
▶ 최소의 창업비용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육과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